

류현진의 시간

1년 2개월만에 ML 복귀... 오늘 볼티모어전 선발 등판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8시 7분 로저스센터에서 열리는 볼티모어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이 빅리그 경기에 등판하는 건 지난해 6월 2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당시 4이닝 5피안타 3실점 한 뒤 팔꿈치 통증을 느껴 강판한 류현진은 "오늘 등판을 후회한다"고 털어놓았다.

류현진은 지난해 6월 19일 왼쪽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피하고 싶어 하던 류현진도 막상 수술이 확정된 뒤에는 "2023년 7월 중 복귀를 목표로 재할하겠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예정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 류현진은 30대 중반의 투수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고, 완전한 선발 투수로 복귀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비판론을 뚫고 '완전한 선발'로 마운드에 복귀한다.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은 "류현진의 투구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2021년 평균자책점이 4.37(14승 10패)로 치솟는 등 고전했고, 지난해는 팔꿈치 통증에 시달리다가 6경기 2승 평균자책점 5.67의 초라한 성적표를 남긴 채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6년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오른 류현진은 '30대 중반의 나이'라는 장벽도 뚫고, 재활에 성공했다. 다음 목표는 '재기'다.

2020년 토론토와 4년 8000만달러에 계약한 류현진은 올 시즌 뒤 계약이 만료된다.

토론토는 10월 2일에 2023년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14개월 동안 인내한 류현진이 남은 두 달, 전력 투구를 예고했다.

남은 2개월의 성적은 류현진의 빅리그 잔류와



빅리그 복귀 앞두고 경기 관람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 /연합뉴스

KBO리그 복귀, 둘 중 하나를 결정할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류현진이 복귀전에서 만나는 볼티모어는 꽤 부담스러운 상대다.

볼티모어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선두(승률 0.610-64승 41패)를 달린다. 아메리칸리그에서 유일하게 승률 6할대를 유지하는 팀이기도 하다. 경계해야 할 타자도 많다.

올 시즌 타율 0.268, 14홈런, OPS(출루율+장타율) 0.792를 올린 에드리 러치먼은 왼손 투수를 상대로는 OPS가 0.870으로 더 상승했다.

홈런 18개를 친 센서니 산탄데르도 좌투수 상대 OPS 0.823으로 왼손 투수에 강했다.

볼티모어는 2일 선발 투수로는 오른손 카일 브래디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PSG 이강인 한국팬 만난다

3일 부산서 전북 현대와 대결
네이마르·하키미 등 스타 출전

'막내형' 이강인(22)이 축구대표팀 유니폼 대신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 유니폼을 입고 48일 만에 부산 팬들 앞에서 화려한 기량을 선보인다.

이강인은 3일 오후 5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PSG와 K리그1 강호 전북 현대의 '쿠 팡플레이 시리즈 3차전'을 통해 부산 팬들 앞에 선다.

앞서 이강인은 클럽스관호의 일원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지난 6월 16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치러진 페루와 A매치 때 부산 팬들과 만났다.

이후 지난달 9일 PSG에 입단하면서 소속팀이 바뀐 이강인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한국 팬들과 다시 만나는 데, 그 첫 무대가 3일 부산에 마련됐다. 이강인은 페루 평가전 이후 48일 만에 부산 팬들과 재회한다.

PSG의 새내기로 변신한 이강인의 얼굴도 반갑지만 축구 팬들은 PSG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세계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손꼽히는 네이마르를 필두로 브라질 대표팀의 센터백 마르קי누스, 이탈리아 대표팀의 베테랑 미드필더 마르코 베라티, 포르투갈 대표팀 '젊은괴' 미드필더 비티냐, 모로코 대표팀의 풀백 아슈라프 하키미 등 뛰어난 선수들이 부산을 찾는다. 다만 '월드스타' 킬리안 음바페가 계약 갈등으로 방한 멤버에서 빠진 게 아쉽다.

국내 팬들에게는 이강인의 출격 여부가 최고 관심사다.

이강인은 지난달 22일 프리시즌 경기에서 전반 막판 허벅지 이상을 호소하며 교체된 이후 재활과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이강인은 PSG의 일본 투어에서도 알나스르(사우디), 세레스 오사카(일본)와 경기에 모두 빠졌다.

다행스럽게도 이강인은 지난달 30일부터 팀 훈련에 복귀해 러닝 등을 소화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PSG는 1일 저녁 일본에서 인터밀란(이탈리아)과 일본 투어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이강인은 인터밀란전보다는 3일 전북과 경기에 출전할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



PSG 트레이닝 센터서 훈련하는 이강인.

더불어 그동안 발목이 좋지 않아서 이강인과 마찬가지로 프리시즌 경기 출전 컨디션 조절에 나섰던 네이마르 역시 이강인과 함께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PSG가 상대할 전북도 K리그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전북은 이번 시즌 초반 감독 교체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잠시 고전했지만 4위까지 치고 오르면서 서서히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스트라이커 조규성이 미드필더(덴마크)으로 최근 이적하면서 공격라인에 공백이 생겼지만 '토종 공격수' 문선민(6골)과 송민규(5골) 등이 골 감각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핵심 외국인 선수 구스타보(2골)도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폼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특히 팬들은 K리그 선수 가운데 가장 화려한 세리머니를 펼치는 문선민의 활약을 기대한다.

문선민이 PSG를 상대로 골 맛을 보고 특유의 '관제탑 세리머니'를 펼칠지가 관전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연합뉴스

한준수 "신인의 마음, 매일 새 출발"

KIA 2018년 신인 1차 지명 '유망주'
올 11경기 출전...SSG 원정 생애 첫 홈런
지금도 늦지 않아 시작하는 마음으로



KIA 타이거즈의 포수 한준수가 신인의 마음으로 매일 새 출발선에 선다.

한준수는 KIA가 2018년 신인 1차 지명 선수로 선택한 '유망주'였다. 서석조에서 야구를 시작해 동성중과 동성고를 거쳐 줄곧 포수로 활약을 한 한준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경기에 나설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수준급 기량과 가능성을 갖춘 대형 포수로 꼽혔다.

팀의 6번째이자 18년 만에 탄생한 포수 1차 지명 선수였던 한준수는 많은 기대 속에 고향팀 유니폼을 입었지만 결승이 더뎠다. 2019년 7경기에 나온 게 전부였다.

상무야구단에서도 탈락한 한준수는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수색대로 군복무를 한 뒤 지난해 12월 팀에 돌아왔다.

한승택과 주효상으로 시즌을 열었던 KIA는 부상과 부진 등의 여파로 다양한 안방 조합을 맞췄다.

지난 6월 25일에는 한준수가 김선우를 대신해 전역 후 1군에 처음 콜업됐다. 그리고 한준수는 6월 28일 키움전에서 시즌 첫 경기에 나서서 등 7월까지 11경기에 출전했다. 선발보다는 백업 선수로 나서면서 19타석에 그쳤지만 한준수는 1군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한준수는 7월 5일 SSG와의 원정 경기에서 '난세의 영웅'이 되면서 잊지 못할 하루도 만들었다. 삼성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포수 김태군이 '호랑이 군단'의 일원이 된 이날, 한준수는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던 김태군을 대신해 선발로 마스크를 썼다.

그리고 한준수는 프로 데뷔 홈런 포함 3안타 활약을 하면서 팀의 17-3 대승의 주인공이 됐다.

이후 김태군이 안방을 독차지하면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한준수는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한준수는 "처음에 전역하고 와서는 야구를 안 하다 하니 어깨가 아프기도 했고 몸이 힘들었다. 하지만 야구를 다시 하니 재미있었다. 아프지 않고 경기를 하니 자신감도 생겼고, 내 할일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라운드를 떠나 있는 동안 야구에 대한 간절함도 생겼고, 마음의 부담도 줄었다. 한준수는 "군대에서는 빨리 야구 하고 싶다는 생각 밖에 없었던 것 같다. 군대 가기 전에는 막막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마음이 편하다. 야구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퓨처스에서 수비는 물론 방망이까지 생각을 하면서 시즌을 준비한 한준수는 예상보다 빠르게 1군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잡았다.

한준수는 "열심히 하기 보다 잘 해야 한다. 태곤 선배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 배운 만큼 나도 써먹어야 한다. 잘 배워서 좋은 성적 내고 싶다"며 "아직도 멀었다. 많이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을 이야기한 한준수는 매일 새 마음으로 새 출발선에 서고 있다.

한준수는 "홈런치고 그라운드를 돌았을 때 기분 좋았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계속났다"면서도 "다음 경기가 중요하다. 그 경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다음 경기에 집중하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많이 아쉽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준수

광주FC, 스포츠 토토 구매 김재봉 계약 해지

광주FC가 스포츠 토토 구매 사실이 확인된 수비수 김재봉(사진)과 계약을 해지했다.

광주는 "김재봉이 K리그가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인 스포츠 토토 구매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31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익명의 제보를 받은 광주는 김재봉과 면담을 갖고 제주유나이티드 시절인 2020년 토토를 구매한 것을 확인했다.

구단은 광주 시절의 비위 행위는 아니지만 토토가 K리그 규정 상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이기

때문에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연맹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김재봉을 내보낸 광주는 임직원 및 선수단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대를 거쳐 2018년 성남FC에서 프로에 데뷔한 김재봉은 2020년 제주에 이어 2021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안산 그리너스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지난해 광주 유니폼을 입고 29경기에 출전했고, 올 시즌에는 FA컵 경기에만 나섰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리그 소속 선수가 스



스포츠 토토 구매, 불법도박 및 유사행위에 참여·연루된 경우 ▲제명 ▲1년 이상 자격정지·출장정지 ▲1000만원 이상 제재금 부과 ▲사회봉사 명령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김재봉의 경우 구단에서 먼저 계약 해지를 한 만큼 연맹 징계 대상은 아니다. 단 연맹은 김재봉이 하위 리그 등 다른 팀에서도 뛸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광주의 경위 등을 대한축구협회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

'루키 돌풍' 황유민·김민별·방신실 우승 경쟁

KLPGA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고진영, 22개월 만에 국내 출전

한국 여자골프 간판 고진영이 약 22개월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 나온다.

고진영은 오는 3일부터 나흘간 제주시 블랙스톤 제주(파72-6626야드)에서 열리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10억원)에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

KLPGA가 로컬 파트너로 참여했던 2021년 10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당시 고진영은 대회 우승으로 한국 선수의 LPGA 투어 통산 200승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국내 팬들의 응원을 듬뿍 받아 2년 전 좋은 기억을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고진영은 LPGA 투어에서 부진의 기미를 보인다.

올해 3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5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우승으로 통산 15승을 쌓았으나 이후 3번의 메이저대회를 거치며 기세가 주춤했다.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공동 20위로 마감했고 7월 US여자오픈에서 컷 탈락의 충격을 맞았다.

다나 오픈(공동 26위) 이후에 출전한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도 공동 20위에 그쳤다.

그 여파로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1위 자리를 벨리 코다(미국)에게 내줬다.

이번 대회는 KLPGA 투어가 지난달 16일 에버 플라자-더시에나 퀸즈라운을 마치고 휴식기를 가진 뒤 하반기 들어 처음 여는 대회다.

올 시즌 '유이하게' 다수에 성공한 박지영이 3승

선착에 도전한다.

경쟁자인 박민지(시즌 2승)는 지난주 에비앙 챔피언십에 출전해 이번 대회를 건너뛴다.

박지영은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상금과 대상 포인트 경쟁에서도 박민지를 따돌릴 수 있다.

상금 순위에서 박민지(5억8877만원)는 선두 박지영(6억3456만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고, 대상 포인트에서도 홍정민(318점)과 박민지(300점)가 1위 박지영(326점)을 쫓고 있다.

올해 '루키 돌풍'의 주역인 황유민, 김민별, 방신실의 신인왕 경쟁도 이어진다.

대우유니아-MBN 여자오픈을 제패한 황유민은 신인상 포인트 1위(1445점)로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

2위 김민별(1412점)은 아직 우승은 없지만 준우승 2번, 3위 1번을 포함해 톱10에 6번 진입하는 등 안정적인 실력을 뽐내고 있다.

E1 캐리티 오픈 우승자인 방신실은 드라이브 비거리 1위(267.16야드)의 장타력을 앞세워 3위(1050점)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